

研究資料

「閑情錄」(治農門)을 통하여 본 許筠의 農業經營思想

金 榮 鎮

院長, Ph. D. (作物學)

- I. 「閑情錄」著述의 時代的 背景
- II. 農書로서의 「閑情錄」(治農門)의 體制와 價値
- III. 治農門의 農業經營構想
- IV. 許筠의 農業經營思想

사 黃允吉을 수행한 바 있으며 후일 禮曹, 兵曹, 吏曹判書를 거친 文臣으로 性理學과 문장에 통달 하였다. 許筠이 12세 때 부친이 작고하매 그는 큰형 許篈을 嚴親으로 모시고 자랐다.

그의 작은 형 許篈은 昌原府使 등을 거쳤으나 당쟁의 물결 속에 휘말려 流配 후 관직 재임용을 거절하고 유랑생활을 하다가 38세 때 금강산에서 요절한 정의과의 사나이였다.

篈은 篈의 道學정신과는 달리 文學을 통해서 젊은 패기를 나타내곤 하여 당대의 명사인 李山海, 高敬命, 朴淳 등과 교류하며 마음껏 才氣를 표현하였다. 筠과 6세 年上인 누이 許蘭雪軒은 唐詩에 능해 崔慶昌, 白光勳과 더불어 소위 三唐으로 불리리 만큼 文名이 높았던 李達에게 筠과 같이 사사하여 그의 詩文이 중국에서까지 평가받던 女流詩人이었다.

筠은 9세 때 詩文을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한 神童인 데다 비록 27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요절하기는 하였으나 누이 蘭雪軒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能小能大한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I. 「閑情錄」著述의 時代的 背景

1. 許筠의 家系와 生涯

許筠은 1569년에 태어나 1618년 逆謀로 능지처참의 처형을 받을 때까지 49년간 이 세상에 살다간 사람으로 字를 端甫 號를 蛟山, 惺惺翁 등으로 부른 文人이요, 文臣이다.

그의 貫鄉은 陽川으로 호랑이 그림에 능하고 軍資監奉事를 역임한 許辭의 손자이며 大司成, 副承旨, 慶尙道觀察使 등을 역임한 許曄의 세째 아들이었다.

許曄은 宋나라 邵雍을 私淑한 徐敬德의 徒弟로 方伎, 道術을 가까이 하여 다른 朱子學者들과는 달리 道仙思想의 영향도 받은 사람이다. 許筠의 큰형 許篈은 典籍으로 있을 때 書狀官으로 통신

그는 25세 때인 壬亂 중에 廷試文科乙科에 급제하여 檢閱, 世子侍講院說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일찍부터 讖書도 지어 장래를 예언하기도 하였다.

28세 때(1597년)는 文科重試에 壯元하고 다음 해 황해도 都事(從 5 品, 地方官의 糾察, 科試를 담당)가 되었을 때 妓生을 별실에 두고 즐겼다는 소문으로 파직된 일도 있으나 그후 春秋館注官, 刑曹正郎을 지내기도 하였다.

1602년(宣祖 35년)에는 遠接使, 李廷龜의 從事官이 된바 있고 司藝와 司僕寺正을 지내고 이어 典籍, 遂安郡守도 역임하였으며 1606년에는 遠接使 柳根의 증사관이 되었다. 이때 明使 朱之蕃을 영접하면서 그의 文才는 明使들을 놀라게 하였다.

1607년에는 尙衣院正을 비롯하여 三陟府使, 內資寺正, 公州牧使 등을 거쳤으나 삼척에 있을 때 崇佛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다시 등용되어 刑曹參議가 되었으며 1610년에는 陳奏副使로 明에 갔을 때 天主教의 기도문을 최초로 얻어 오기도 하였다. 이해 그는 試官이 되었으나 일가를 不正으로 及弟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그 職에서 물러나 益山郡泰仁(咸悅)에 유배되었다. 이때 그는 이 배소에서 食品書인 「屠門大嚼」을 完成하였으며 「閑情錄」 서문에 따르면 이해에 「閑情錄」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今年已四十二 頭髮種種 無能爲矣).

1613년(光海君 6 年) 癸丑獄事 때 그와 平交가 두터웠던 庶子출신의 朴應犀가 죄를 지어 처형되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자 집권자 李爾瞻과 가깝게 지내면서 禮曹, 戶曹의 參議職을 거쳐 承文院副提調를 지냈다. 1614년에는 千秋使가 되어 중국에 들어가 그곳 史書에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

고 다음 해에 冬至使겸 陳奏使 閔馨男의 副使가 되어 중국에 들어가 잘못 기록된 점을 고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朝鮮人으로서의 기백과 정의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中國人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48세 되던 1617년에는 宣祖繼妃(仁穆大妃) 金氏를 대상으로 하는 廢母論을 주장하여 大北派로서 王의 신임을 받아 그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었으나 이를 기화로 반란계획도 세울 만큼 反抗의이며 不義와 不正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해에 左贊成에 올랐으나 1618년 河仁俊, 金字成, 金胤黃, 黃廷弼, 禹慶邦 등과 공모하여 반란을 획책한 것이 탄로되어 1618년 8월 24일 그는 財産몰수와 더불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2. 「閑情錄」著述의 背景

許筠은 生前에 「惺所覆瓿藁」「鶴山樵談」「國朝詩刪」「홍길동전」(卷之單)등을 저술하였다.

「惺所覆瓿藁」는 許筠 스스로 엮은 시문집이다. 1610년 咸悅의 유배지에서 왕년에 썼던 草稿와 기억을 토대로 엮은 것인데 그가 鞫問을 받기 직전 外孫 李必進의 집으로 보내 보관되어 文士들 사이에 읽혀 오다가 正祖가 그의 文章을 아껴 精寫하여 규장각에 보존케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온 것이다.

卷1~卷21까지는 각체의 시문이 실려 있고 卷22~卷26은 說部로 「惺翁識小錄」, 「惺叟詩話」, 「屠門大嚼」이 포함되며 附錄으로 「閑情錄」이 있다.

그의 詩文은 문장으로서만이 아니라 朋黨의 弊害, 身分의 타파, 제도의 개혁, 국방의 대비, 종교적 思惟 등의 비판적 내용이 곳곳에 깔려 있고

그밖에 紀行과 交友관계 기록들이다.

「惺翁識小錄」은 함열의 배소에 있을 적에 祖宗 이래 賢士大夫의 행적과 사적 중에서 보탬이 될 奇聞, 異觀 등 194則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故實, 逸話, 制度 등이 담겨져 있어 현재 正史의 측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惺叟詩話」는 일종의 詩評集으로 신라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8백여 년간의 詩話와 그 시인의 佳句를 인용하여 96件을 評한 것으로 「國朝詩刪」을 엮은 뒤에 그것과 부수하여 지은 「鶴山樵談」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詩評集이라는 評을 받고 있다.

「屠門大嚼」은 1611년 함열의 배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어릴적 山海珍味를 맛 보았다가 壬亂으로 외가인 江陵에 피난할 때와 귀양살이 속의 궁색스러운 굶주림을 면치 못하여 중국의 「何氏食經」을 본받아 119종의 食品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서로 '屠門大嚼'이란 제호도 푸줏간 앞을 지나며 크게 입맛을 다신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는 餅餌之類, 果實之類, 飛走之類, 海水族之類, 蔬菜之類 및 茶, 酒, 蜂蜜, 油, 藥飯, 등으로 나누어 그 특산지 季節, 모양, 맛 등을 적고 자신의 경험도 곁들이고 있다.

맨 끝에 附編으로 16卷의 「閑情錄」이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附編의 성질이 아니라 별개의 저술에 속한다. 내용은 退居한 士大夫들이 山林에 은거하는 동안 참고를 위해서 엮은 것으로 ① 隱遁 ② 高逸 ③ 閑適 ④ 退休 ⑤ 遊興 ⑥ 雅致 ⑦ 崇儉 ⑧ 任誕 ⑨ 曠懷 ⑩ 幽事 ⑪ 名訓 ⑫ 靜業 ⑬ 玄賞 ⑭ 清供 ⑮ 攝生 ⑯ 治農(別集附, 詩賦雜文과 靜玩) 등 16門16卷으로 되어 있으며 許筠 자신의 「閑情錄」凡例에도 16門16卷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李離和가 編한 許筠全

書에는 첨부한 別集부분을 「瓶花引」이라는 題下에 內容의 변동없이 1권을 더 늘려 17門17卷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轉寫과정에서 內容의 변동없이 增門된 것으로 보인다.

이 「閑情錄」은 서두의 범례에 따르면 1610년 여름 著者 자신이 병에 걸려 두문불출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朱蘭嶼太史가 전사한 栖逸傳, 玉壺水, 臥遊錄 등 三種의 閑情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초록한 것을 4門으로 나누어 둔바가 있었다 하였는데 애당초 4門으로 나눈 것은 사실이나 병이 아니라 이 해에 그는 試官으로 있으면서 그의 一家를 不正으로 及弟시키고 탄핵을 받아 泰仁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1614년에 千秋使, 1615년에 冬至使兼 陳奏使의 副使로 중국에 갈 때 4천여 권의 서적을 구입해와 그중에서 閑情에 관한 것에는 부전을 붙여 두었다가 1618년 그가 처형되던 해의 봄 그의 표현대로 「석고대죄하며 전율하고 있는 동안 괴로운 심사를 풀길 없어 여러 서적에 부전을 붙여 두었던 곳을 초록하여 16門16卷으로 확대하여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閑情錄」은 1610년에 4門으로 草稿하여 두었다가 1618년 처형되기 직전에 16門으로 확대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가 「閑情錄」을 쓰게된 배경은 당시의 社會相을 들 수 있다. 국초 이래 잦은 王子의 亂이나 執權層의 政爭 그리고 이에 따른 士禍 등 관계 일선의 상호투쟁과 契약이 항상 隱居를 생각하게 하고 또 隱居에 참고될 서적을 저술토록 한 것이다. 당시의 사경으로 來日을 알 수 없는 정치적 禍難에 시달리던 儒者들이 그 逃命處로서 조용한 山林이나 泉澤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까운 예로 許筠의 仲兄인 許篈이 당쟁에 휩쓸려 流配된 후 다시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

고 山川을 찾아 유랑하다 금강산에서 요절한 바 있고 許筠 자신도 「閑情錄」序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리로서 승진에 급급하다 보니 일년내내 한가하지 못하였다. 이해득실이 대차없는 데도 이르하여 슬프고 칭찬과 헐뜯음이 모기나 맹공이 소리같이 들려도 마음이 이르하여 흔들려 관직에 머뭇거리다 함정에 빠졌다」는 구절로 보아 당시의 官界社會나 筠 자신의 저술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더우기 그는 現實의 병폐를 타파하여 과감한 制度改革을 앞장서 주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현실에 대한 정신적 갈등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士大夫들이 許筠과 같이 儒家에서 이단시하던 老子나 佛教 등 다른 理念世界에 출입, 방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許筠이 明나라에 갔을 때 天主教의 기도문을 얻어 왔다든가 三陟府使로 있을 때 崇佛한 죄로 파직된 예는 理念의 방황에서 온 결과일 것이며 또 일서 讖書秘記에 취미를 가졌던 것도 그의 부친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그의 정신적 갈등의 산물이라 믿어진다.

이와 같은 현실도피적 隱逸思想의 연원은 고려 고종시의 竹林七賢, 麗末의 杜門洞 72人, 그리고 朝鮮朝의 生六臣, 朴蘆溪, 尹孤山, 林白湖, 金沙溪 등에서 그와 같은 脈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隱逸高士가 숭배되고 지배층인 양반士大夫의 퇴거가 고상시 되는 상황에서 許筠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날 林下에서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잊은 선비를 만나게 될 때 이 책을 내어놓고 담론코자」 「閑情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Ⅱ. 農書로서의 「閑情錄」(治農門)의 體制와 價値

1. 農書로서의 治農門의 體制

「閑情錄」은 原文으로 凡例를 포함하여 35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제16卷의 治農門만은 분량이 많아서 모두 37면으로 「閑情錄」 전체의 10%가 넘고 있다.

治農門의 農書로서의 체제를 살필 때 그 내용은 총론부분(擇地, 資本, 定居, 種蔬, 樹植, 蠶繅, 牧養, 順時, 務勤)과 習儉(耕種), 養蠶, 畜産, 養魚 등 各論 부분으로 大別되고 習儉(耕種) 부분은 다시 穀實作物, 特用作物, 채소, 원예 등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果樹, 花卉, 竹木 등에 관한 各論만이 제외되어 거의 완전한 가까운 綜合農書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綜合農書의 체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의 農業經營사상을 살피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綜合農書의 體制는 山林에 은거하는 자의 自給營農上의 필요를 충족 시키고자 저술한 것이므로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중에서도 畜産과 養魚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農書)이 되고 있다. 다만 果木이나 木竹은 총론 부분에서는 그 필요성을 言及하였으나 각론 부분이 결여되어 均衡이 맞지 않으나 이는 저술 당시 參考材料가 부족하였거나 저자가 석고대죄하고 있는 불안한 경황 중의 저술이라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경황 중의 저술이었다는 증거는 작물학 각론

「閑情錄」과 그 이전의 農書比較

書名	著述年代	著書	內 容										體 制	
			穀實	特作	채소	花卉	과수	竹林	養蠶	畜産	수의	養魚		
新編集成馬(牛)醫方	1399	趙 浚	—	—	—	—	—	—	—	—	—	○	—	獸醫전문서 農桑輯要的 抄錄本 綜合農書에 가깝게 抄 錄 耕種農書 花卉 전문서 四時纂要抄 其他 (月令式 綜合農書) 綜合農書
養蠶經驗撮要	1415	韓尙德	—	—	—	—	—	—	—	○	—	—		
撮要新書 (耕稼, 蠶桑門)	1415	朴興生 이진	○	—	—	○	○	○	○	—	—	—		
農事直說	1429	鄭 招	○	○	—	—	—	—	—	—	—	—		
養花小錄	1449	姜希顔	—	—	—	○	—	—	—	—	—	—		
衿陽雜錄	1483(?)	姜希孟	○	—	—	—	—	—	—	—	—	—		
四時纂要抄	1483(?)	姜希孟	○	○	○	○	○	○	○	○	—	—		
閑情錄(治農)	1618	許 筠	○	○	○	—	?	?	○	○	○	○		

? 表示는 總論부분에서만 言及된 것임.

적 풀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芥菜, 白菜, 靛菜, 烏松菜, 葳菜의 각론적 풀이를 단 26자로 한데 묶어 끝맺었다거나 蘿蔔을 二重으로 구분하여 혼란케 한 것, 그리고 作物學的 성상이 相異한 메밀과 콩을 한 조항에 묶어 풀이한 것 등은 비록 처형을 알두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이라 하더라도 농서만의 입장에서 보면 체계나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本書가 지니는 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또 文字의 사용에 있어서도 곡식을 뜻하는 「穀」字를 모두 「谷」字로 표현하거나 부추를 뜻하는 「韭」字를 슬픔을 뜻하는 「悲」로 표기하거나 作物學 각론풀이에 있어서도 作物名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그 각물의 재배학적 풀이를 기술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거꾸로 재배학적 풀이를 먼저 기록하고 작물명을 맨 끝에 작은 글씨로 註를 달아 기록함으로써 讀者로 하여금 두서를 가리기 어렵게 한 점 등은 本書가 지니는 둘째번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治農門은 완성되지 않은 草稿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는 지혜충명한 데다 壬亂 때 일찌기 江陵에 피난을 갔다가나 黃海道都事, 遂安郡守, 三陟府使, 公州牧使 등 勤農을

위한 地方官, 그리고 咸悅의 流配生活 등을 통해 農事를 익힌 우에 중국 南方의 農書인 陳旉의 「農書」와 北方農書인 「齊民要術」, 그밖에 「師曠占術」, 「陰陽書」, 「養魚經」 등을 참고하여 「농사직설」의 2.3배, 「衿陽雜錄」과는 비등한 분량의 治農門을 엮고 있다. 다만 그가 우리나라의 기존농서인 「農事直說」이나 「衿陽雜錄」, 「四時纂要抄」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은 壬亂의 禍中에서 산질되어 입수가 어려웠던 때문이 아닌가 믿어진다.

2. 治農門의 農業技術과 價値

「閑情錄」 治農門이 농서로서 몇 가지 취약점이 있으면서도 既存의 우리 農書보다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이 농서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白扁豆, 19종의 채소와 豆芽菜(콩나물, 숙주나물), 모시, 목화 등 종전에 없던 새로운 農作物의 재배법을 풀이한 것과 養牛, 養鷄, 養魚 등이 추가된 것이다.

둘째로, 벼 이앙에 있어서, 6株 1行의 正條

식을 기록한 것이라던가 벼 생육 중간에 間斷灌水를 통해 잡초제거와 토양통기를 조장하는 일들은 벼 재배의 새로운 과학이다.

세째로, 재배기술 면에서 채소를 파종할 때 芽種法을 소개한 것이다. 芽種法은 싹을 미리 틈위 파종하는 것으로 발아를 고르게 하는 한편 잡초보다 먼저 성장시켜 地上공간을 先占 시킴으로써 잡초발생을 억압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作物과 잡초의 생태를 알고 이를 경종에 도입한 과학적 발상이다. 또 모시풀 번식법의 하나로 휘문이법을 이용하였다거나 木花栽培에 있어서 摘心術을 도입하여 영양의 소모를 막고 이미 맺어진 목화다래의 충실을 기하자는 것도 훌륭한 새 기술이다.

네째로, 地力增進을 위한 새로운 肥種으로 泥土, 棉實粕, 大豆粕 등이 추가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다섯째로, 病虫害 방제기술로 苦參根, 石灰水 등 최초의 살충제를 개발하였다는 사실이나 물여귀, 썩 등을 말려 보리저장시 섞어서 저장함으로써 貯穀害虫을 방제하는 것도 治農門에서 비로소 추가된 방제기술이다.

여섯째로, 닭을 기를 때 의도적으로 벌레를 길러 닭에게 먹임으로써 蛋白質飼料를 보충케 한 것과 肥育法, 그리고 羊糞를 草魚에게, 草魚糞을 連魚에게 먹이는 飼料連鎖현상을 도입한 것, 그리고 養魚의 解毒劑로서 파초집을 흘려 넣는 것 등도 기존 농서에 없던 내용들이다.

일곱째로, 논외의 二毛作 보리재배, 못자리 뒷그루로 蠶豆를 재배하는 것 등 논외의 새로운 作物體系를 도입한 것도 土地利用方式 면에서 주목되는 내용이며 농업기술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끝으로, 技術的인 내용 이외에 이 「閑情錄」 治

農門은 綜合農書의 체제를 최초로 갖춘 농서로 후일 이를 참고하여 「山林經濟」 같은 大作의 農書를 저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면에서 韓國農學史上에도 그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治農門의 農業經營 構想

1. 農場立地와 農業經營要素

許筠의 農場立地는 자신이 山林에 조용히 은거 할 때를 가상하거나 은거하는 士大夫의 참고를 위해서 설정된 것이므로 자연히 번잡한 都邑 인근이나 마을이 아님은 쉽사리 추측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인적이 드문 孤立된 農場을 가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擇地條에서 農場의 위치를 水陸에 아울러 통하면서 뒤에는 山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을 택하고 있다(水陸并通, 背山面湖)

그러나 이와 같은 위치는 단순한 풍치좋은 背山面湖가 아니라 生産을 전제한 위치 선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樹植條에서 뒷산에는 果木이나 用材生産을 구상하였고 面湖는 벼농사를 위한 水利와 養魚用水를 전제로 한 立地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樹植條에서 材木과 菓核을 생산하여 財貨(상품생산에 의한)나 器用의 자료를 얻고(核種材木菓核 以爲財貨器用之資) 牧養條에서 다섯 가지 가축과 더불어 다섯 가지 水畜(물고기)을 기르며(子欲致富 當五梃 又曰治生之法 有五水畜 第一牧養 其可緩乎) 계절이 없이 생산을 거둘 수 있어 이로움이 많다고 하였기 때문이다(常産而牧養利可興矣). 이로 볼 때 허균의 立地選擇은 몇

가지 部分을 복합한 경영을 전제한 背山面湖의 입지선택이라 할 수 있다.

許筠의 農業經營要素는 항을 달리하여 明示하지는 않으나 治農門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오늘날의 經營要素와 같이 세 가지로 類別할 수 있다.

그는 種穀條에서 자급식량을 위하여 60석의 수량을 거두기 위해서는 100畝의 농지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 30畝는 徒僕의 自耕自給을 위해서 할애하고 그밖에 養魚用地로 6畝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과실이나 用材 생산을 위한 山地를 말한 것을 보면 그는 經營要素로서 土地를 한 요소로 잡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음, 資本에 있어서는 各色經營, 無本不立이라 하여 어느 부분의 경영이든 資本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非財不成이라 하여 자본이 아니고서는 농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資本條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자본이 넉넉지 않으면 土地 등 다른 경영요소가 이미 있어도 성공을 거둘 수가 없으므로 장차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축적된 資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同類既得而 資本不裕 亦無成功). 조선시대에 저술된 여러 농서에서 농업경영상 자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농서는 일찌기 없었다.

다음, 경영요소 중 勞動에 있어서는 100畝 중 30畝는 종복들의 勞力에 맡기고 나머지 70畝는 머슴인 佃人의 고용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自家勞力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隱居는 하였을 망정 士大夫의 체면에 직접 노동할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안하였던 것으로 풀이 된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기풍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勞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務勤條에서 근면을 강조

하면서 勞動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였다거나 소를 부릴 때 서늘한 밤에 부림이 소나 사람이 덜 피로하고 능률적이라는 것을 보면 勞動도 土地나 資本 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있다. 그가 노동을 중요시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력이 많이 드는 集約作目的 배치를 住居 가까이에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許筠은 농가의 농업경영을 구상함에 있어서 위치선택부터가 여러 부분의 복합경영을 전제한 것일 뿐 아니라 經營要素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늘날의 經營要素와 같은 요소를 경영의 골격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2. 經營部門과 經營目的

許筠은 총론 부분에서 種穀, 種蔬, 樹植, 蠶繅, 牧養의 5개 부분을 組合한 한 經營單位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 이를 各色經營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농가의 經營 중에서도 經營部門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서로 다른 經營부분을 한 농가가 組合하여 경영하는 複合經營을 구상한 것이다. 그것은 山林에 위치한 농가가 세상을 등지고 살려면 자연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자가생산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합경영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밝힐 것은 經營部門의 분류에 있어서 許筠은 생산대상의 성상에 따라 좀 특이한 類別을 하고 있다. 예컨대 畜産과 養魚는 같은 동물이나 飼育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牧養部門으로 분류하고 林木과 果樹는 나무라는 견지에서 樹植部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나 作目的 성상, 그리고 집약성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세분할 때 穀實, 菜蔬, 果實, 養蠶, 畜産, 養

魚, 林木의 7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許筠은 經營의 目的을 자급 자족을 위한 經營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는 반드시 자급자족만을 經營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林木이나 果核은 자급을 위한 器用이나 財貨, 즉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資하라고 하였다든가, 致富를 위해서 五杼로 표시한 家畜이나 五水畜으로 표시한 각종 어류를 기른다는 것, 그리고 豌豆재배에서 수확한 것을 깎지 채 팔 수도 있다는 기록(接豆角亦可賣)과 계란은 자가소비하거나 다른 물건과 바꿀 수도 있다(鷄之蛋是供日用又可縛換諸物)라고 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自給生産을 經營의 목적으로 하지만 과실, 가축, 계란, 물고기, 완두 등 상품성이 높은 것은 현금소득이나 자본증식을 위해서 出荷 또는 교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許筠이 經營目的을 商品生産에 둔 것은 養魚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養魚條에서 알이 밴 3척의 잉어 20마리와 3척의 숫잉어(牡鯉) 4마리를 2월에 6畝의 양어장에서 사육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증식된 것 중 2척 짜리 2천마리의 종자용 잉어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 버리라고 하였다(留長二尺者二千枚作種所餘皆賣). 이 양어경영은 완전한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許筠은 농산물의 시세에도 민감하였던 것 같다. 그 예로 白扁豆 1升은 2分の 돈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收子可賣二分一升).

許筠은 種穀條에서 자가 식량의 충족을 위해서 種穀의 필요성을 말했을 뿐이며 채소나 양잠에서도 市場出荷에 대한 言及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과실이나 가축, 계란, 완두 등에서는 財貨增殖, 致富 등을 위해서 팔 수도 있다(亦可賣)로 표시하였다가 잉어에 있어서는 자가소비

의 표현이 전혀 없이 皆賣라 하여 모두 팔아버리라는 것은 許筠의 경영구상이 생산부문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商品생산이 위주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각종 농서 중 이와 같이 시장출하나 상품생산을 말한 農書는 「閑情錄」이 처음이다.

3. 勞動生産性を 감안한 圃場配置

許筠의 圃場配置는 거처하는 住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는 穀食과 菜蔬를 식량의 차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동등시하고 穀食이 여물지 않아 굶주릴 때를 「주릴 飢」字로 표시하고 채소가 자라지 않아 굶주릴 때를 「주릴 饑」字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곡식이 나 채소를 모두 거둘 수 없어 굶주릴 때를 「飢饑」이라 한다면 五穀 이외에 채소 또한 불가결의 중요한 식량으로 인정하고 그 포장배치는 주택에 가까우면서 기움매기나 물대기에 편리한 곳을 선택하라 하였다. 이는 제조나 시비관리 면에서 채소가 일반 작물과 달리 노동집약성이 강하므로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포장배치라고 풀이할 수 있다.

穀實作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나 채소를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고 한 뜻은 반대로 비교적 勞動集約性이 덜한 일반작물은 보다 떨어진 곳에 배치하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비단 채소 뿐 아니라 양잠기에 매일 신선한 뽕잎을 따다 주어야 할 뽕나무도 되도록 住居 가까운 곳이나 밭두둑에 심으라 하였다. 또 거리 뿐만 아니라 栽樹방법에 있어서도 애당초 가지가 구부러지게 재식하여 높이 뻗어 뽕잎 따기에 번거로이 많은 수고를 드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이는 노력 절감상 매우 합리적인 경영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같은 나무라도

노력이나 경영관리상 주의가 덜 가는 각종 果木은 住居 뒤의 가까운 山에 栽植하되 나무의 성장과 지세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고 거의 勞力이 들지 않는 林木은 果木보다 멀리 배치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許筠은 포장배치에 있어서 勞動의 效率性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勞動의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하되 작물의 성장도 감안하고 있다. 예컨대 조건이 불량한 山田에는 강건한 작물을 심고 윤택한 밭에는 연약한 작물을 심으라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圃場配置는 궁극적으로 勞動生産性提高를 위한 탁월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경영경제적 기저가 없이는 발상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4. 作付體系와 土地利用

우리나라 밭에 있어서의 作付體系는 「農事直說」이 저술된 15世紀초 이전에 오늘날의 관행과 같은 作付體系가 이미 확립되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농사직설」의 栽培學的 풀이를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1年2作 또는 2年4作의 경우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粟(間作)—大麥, 小麥—粟(間作)—大麥, 小麥
- ② 粟—大麥, 小麥—大豆, 小豆(間作, 後作)—大麥, 小麥
- ③ 大豆, 小豆—大麥, 小麥—大豆, 小豆(後作)—大麥, 小麥

그러나 논외의 作付體系는 「閑情錄」이 저술될 때까지 水稻單作으로만 알려져 왔을 뿐 논외의 二毛作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다. 다행히 許筠은 習儉條의 大小麥 재배에서 옮겨수확 후 배수를 하면서 논뒷그루로 보리를 파종한다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우리나라 畚二毛作이 「閑

情錄」이 저술되기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이미 體系化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논외의 二毛作은 근본적으로 地力增進術의 발전과 人口압력(食糧)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발생지역은 조건이 좋은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은 일반적으로 배수 후라도 수분이 많아 보리를 재배할 경우 월동기간 凍死率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기원은 晚播에 견디며 이듬해 모내기 때 지장을 덜 주는 南端지역에서 먼저 발전되었을 것이다. 특히 호남지방은 월동 중 일기 온화한 우에 밭이 적어 타지방보다 논에 보리를 재배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였을 것이므로 논보리 이모작은 호남의 남단지방에서부터 발전되어 점차 北上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二毛作이 이미 益山地方까지 확대되었던 17세기초에 우연하게도 許筠이 이 지방으로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관행되던 二毛作의 體系를 「閑情錄」 治農條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田畚의 作付體系는 허균이 농업경영을 구상함에 있어 의도적이고 창시적인 作付설계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그 시대 그 地方의 관행농법을 기계적으로 농서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許筠은 농업경영을 구상함에 있어서 土地利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作付體系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같다. 그가 기록한 土地利用 방식의 하나로 一年에 두 번 이상 수확할 수 있다는 부추(韭)나 모시풀(苧麻)의 경우는 작물의 성장 자체가 宿根性작물이라든가 利用部位가 營養體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수확한다는 기록에 별다른 뜻을 지닐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무우의 경우 다달이 파종하고 다달이 수확할 수 있

다는(月月可種 月月可食) 기록이나 녹두의 경우 4월에 파종하여 6월에 수확하고 다시 8월에 파종하여 또다시 거둠으로써 일년에 두 번 거둘 수 있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四月種 六月收子 再種 八月又收子 一年兩熟)土地利用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이에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는 중국 江南의 농법을 소개하면서 모를 뽑아낸 비 못자리를 정지하여 뒷그루로 紅豆를 심는다 하며 밭에서는 穀雨 때 紅豆를 심어 6월에 수확하고 8월에 뒷그루로 蠶豆를 파종하여 다시 거둘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허균이 실제로 실천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정된 토지의 이용증진을 통해 土地生産性を 제고시키고자 하였던 경영경제적 구상을 우리는 쉽사리 看破할 수 있다.

5. 養鷄, 養魚의 經營

許筠의 경제적 경영구상은 양계, 양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養鷄條에서 담밭이나 園中에 鷄舍와 産卵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두고 그 주변에 키가 큰 수수나 기장을 1畝 정도 파종하여 이들 작물이 자랄 때는 닭이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숙이 되면 이들 이삭을 베어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園을 두 구획으로 막아 죽을 끊어 園에 뿌리고 잡초를 덮어 주면 2日만에 벌레가 발생하므로 이를 蛋白質(?) 보충사료로 이용토록하되 한 쪽의 벌레가 소진되면 닭을 다른 쪽으로 몰아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소규모 양계를 하던 당시로서는 매우 개선된 기술이면서 경제적 사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양어에 있어서 연못 기슭이에 羊舍를 짓고

양을 기르되 매일 아침 호수에 羊糞을 쓸어 넣으면 이를 草魚가 먹고 초어가 배설한 草魚糞은 또다시 連魚가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飼魚用水草가 없어도 양어사료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自然草가 변질되어 羊, 草魚, 連魚를 연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飼料連鎖 현상을 경영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 사실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서 許筠의 경영이 경제적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IV. 許筠의 農業經營思想

이상에서 허균의 생애와 「閑情錄」 저술의 배경, 그리고 治農門의 농서적 가치를 살피면서 허균의 경제적 농업경영 구상을 사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治農門이 다른 農書와 달리 經營的 요소를 길게 풍기게 된 것은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농서가 단순한 기술적 권농의 지침서로 저술된 것이 아니고 한 농가의 自營을 전제로 저술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허균의 農業經營思想을 살피건대 7개 부문의 各色經營이 한 농가의 경영에 편입되면서 경영주체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運營되도록 꾸리고 있다. 특히, 그의 經營구상에서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生産部門이나 生産要素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이고도 능률적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이미 열거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作目에 따른 포장배치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勞動生産性を 제고시키고 作付方式 개선이나 이용도를 높혀 土地生産性を 높이며 양

계나 양어飼料의 連鎖이용을 통한 자본생산성을 높이자는 것들이다.

그는 비록 이와 같은 營農구상을 미처 실천할 겨를이 없이 死沒하였지만 勸農을 주된 임무로 하는 地方官의 경험과 피난살이나 流配地의 건문이 한 농가를 경영단위로 하는 당시의 農業經營組織에 生産性提高가 중요함을 인식토록 한 것이다.

또 그는 生産經營의 효율성뿐 아니라 經營의 목적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급자족적 생산품목에서는 商品化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서도 商品성이 높은 品目에서는 대체로 이를 言及하거나 강조하고 品目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市價마저 언급하고 있다. 더우기 현금소득의 계절성을 탈피코자 양어, 양계 등 常産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經濟的 현실사상은 아마도 그가 壬亂의 어려움 속에서 돈 없이 피난 다니던 體驗이, 그로 하여금 資本이나 화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감지토록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당시의 儒生이나 文士들은 전통적으로 朱子學을 신봉하였다. 朱子는 본시 勸農官으로 있으면서 農本이나 生産의 중요성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文士들은 朱子學을 받아 들일 때 스콜라의 空理空談만이 正統朱子學인 것으로 그릇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的 분위기는 士大夫가 商利를 추구한다거나 돈에 눈독을 드리는 것을 타부視하였다. 허균은 文士이면서 전통적인 官僚집안 이요, 양반계급이었다.

그가 생애를 통해 貨幣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壬亂 통의 피난살이와 유배생활 때문이었다. 그는 壬亂 때 外家인 江陵으로 피난가 그곳에서

먹어본 防風粥의 맛을 오랜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食品書인 「屠門大嚼」을 엮을 때 첫 머리에 기록할 정도로 궁색스런 생활을 몸소 체험하였다.

平和로운 安住상태의 自給自足적 상태에서는 農事를 상업화시키는 발상이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세상을 등지고 山林에 은거하는 閑者의 생활지침서격인 「閑情錄」에 기존의 농서에 도 없는 商品生産을 강조한 것은 壬亂이라는 時代的 배경이 그로 하여금 체험적인 實學思想을 胚胎시키고 그 思想이 治農門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許筠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庶孽撤廢論을 주창한 것 못지 않게 선진적인 經營經濟의 思想을 지닌 實學的 文士였다. 그 思想은 原理面에서 오늘날의 農業經營學的 思想과 크게 다를바 없다.

參 考 文 獻

- 金容燮 1981. 「農書小史」
 李離和 1981. 「許筠全書」 pp. 253~350.
 洪萬選 1715. 「山林經濟治農」
 李炫熙 1968. “惺所覆韻藻解題,” 「國會圖書館」47號 pp. 64~69.
 李在崑 1980. “惺所覆韻藻解題,” 「圖書館」246號 p. 44.
 金錫夏 1973. 「韓國文學의 樂園思想研究」(閑情錄研究)
 金鍾天 1984. 「沙溪金長生の 차손들」, 大田日報 84. 7. 26.
 金榮鎮 1982. 「農林水産古文獻備要」, p. 19.
 _____ 1986. 「丁茶山の 思想과 職業觀」
 _____ 1983. “閑情錄의 食물방역,” 「農藥과 植物保護」 11月號
 _____ 1983. “朝鮮初期 韓國農學의 成立過程,” 「農村經濟」 6권 3호
 _____ 1984. 「朝鮮時代前期農書」, pp. 122~134.
 _____ 1985. “朝鮮時代 主要作物의 作付體系,” 「農村經濟」 8권 2호
 永井威三郎 1950. 「實驗作物栽培各論」, pp. 1~122.